

[ Scene Prologue ]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군요.

그야 그렇겠지요.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을 건네면  
하면 당황할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 이 만남은 처음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신과  
저는 언젠가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  
겠지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니  
까요.

부디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부디 당신이 원하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Scene HDay1\_1 ] ( 노벨 게임 파트 )

[ Effect : Fade In ]

[ BCG : 침실 ]

[ SCG : 메이드1 ]

??? : “눈을 뜨셨나요? 엔젤라 황녀님?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은 난생 처음 보는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침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이불.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붉은 머리의 메이드.

처음 겪는 상황에 어리둥절하면서 당신은 메이드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당신은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메이드의 이름이 ‘로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미 : “왜 그러시나요?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시고.”

로미 : “아무 일도 없는 거라면 다행이지만요. 무슨 일이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황녀님의 메이드니까요.”

로미 : “그럼 학교에 갈 준비를 서두르죠. 이러다가 지각하겠어요.”

로미는 익숙한 손길로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쩌다 당신은 이런 곳에서 눈을 뜨게 된 걸까요?

그보다 황녀라는 거, 황제의 딸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던 도중, 메이드인 로미가 말했습니다.

로미 : “황녀님, 오늘 쪽지 시험이 있다고 하셨죠? 황녀님이라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테지만 그래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어라라, 쪽지 시험? 그런 게 있었던가?

어쩐지 힘든 하루가 될 것만 같네요.

◇ [ Scene HDay1\_2 ] ( 노벨 게임 파트 )

쪽지 시험

// 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5가지 정도의 문항이 주어진다.

Q. 제국 알레일라의 수도는 어느 곳일까요?

1. 리온텔 2. 레아네 3. 유틸리아

Q. 제국 알레일라 무역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1. 에리아나 2. 지넬 3. 유아루

Q. 다음 중 마법의 4 속성이 아닌 것은?

1. 흙 2. 물 3. 불 4. 풀

Q. 다음 중 마법 합성이 불가능한 물질은?

1. 루비 2. 사파이어 3. 에메랄드

Q. 다음 중 정령 마법이 아닌 것은?

1. 콜드 브리즈 2. 파이어볼 3. 커넥션

◇ [ Scene HDay1\_3 ] ( 찌꾸르 파트 )

[ Effect : Fade In ]

[ BCG : X ]

[ SCG : 로미 ]

로미 : “시험 고생하셨습니다 황녀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로미 : “네? 평소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구요? 흠음. 오늘은 조금 이상하시네요.”

로미 : “황녀님이 평소라면 하시는 것들이라.....”

로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표정을 찡그리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로미 :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로미 : “첫 번째는 ‘마법 수련’. 학교 안의 기사단에서 대련하며 전투 능력치를 키우시곤 하셨어요.”

로미 : “두 번째는 ‘공부’. 학교 안의 도서관에서 다음 시험을 대비해 열심히 공부하곤 하셨죠.”

로미 : “세 번째는 ‘학교 시찰’. 학생회장으로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시찰하고, 해결하는 일이에요.”

로미 : “황녀님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놀랐어요. 평소에는 무엇이든 혼자 다 하셨으니까요.”

로미 : “조금은 저를 의지해주신다는 뜻인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아요.”

로미 :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의지해주세요. 항상 저는 황녀님의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로미 :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황녀님!”

◇ [ Scene HDay2\_1 ]

[ Effect : Fade In ]

[ BCG : 침실 ]

[ SCG : 로미 ]

로미 : “안녕하세요 황녀님? 좋은 아침이에요.”

로미 : “갑작스럽지만 어제 봤던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 P1 정답 개수에 따른 대화 분기 ]

# if P1 정답 개수 > 3

로미 : “역시 황녀님! 엄청 높은 순위예요!”

로미 : “대단하세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셨던 보람이 있네요!”

로미 : “다른 분들은 시험을 어떻게 보셨으려나.....”

로미 : “아! 황녀님 혹시 루시아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if P1 정답 개수 < 3

로미 : “황녀님... 점수가 그리 높지는 않으시네요.”

로미 : “아, 아니! 딱히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평소의 황녀님답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로미 : “황녀님은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아오셨으니까.....”

로미 : “그건 그렇고! 황녀님은 혹시 루시아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공통 루트 ]

로미 : “루시아 씨는 평민 출신의 유력한 상인 가문의 자녀예요.”

로미 : “평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마법 능력과 높은 학업 성적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이죠.”

### [ P2 정답 개수에 따른 대화 분기 ]

#### # if P2 정답 개수 > 3

로미 : “루시아 씨도 점수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로미 : “평민 출신으로 이 정도까지 결과를 낸다는 게, 저로서는 놀라울 따름이에요.”

#### # if P2 정답 개수 < 3

로미 : “루시아 씨의 성적은..... 음?”

로미 :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걸까요. 루시아 씨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는 건 처음 봐요!”

로미 :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로미 : “하... 하여튼 말이죠!”

### [ 공통 루트 ]

로미 : “황녀님도 루시아 씨에 관해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로미 : “루시아 씨는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원 내 분위기를 바꿀 인물이니깐요.”

로미 : “황제님의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능력이 있는 자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부여하는 학원, 이펠람.”

로미 : “그런 학원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저 루시아 씨예요.”

로미 : “평민 출신이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너가 학원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

당신은 메이드의 말을 듣고, 가볍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신분제가 존재하는 판타지 세계관인 모양이네요.

로미 : “하하,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로미 :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황녀님도 학원 내에서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니깐요. 루시아 씨 이상으로.”

로미 : “앗,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황녀님.”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곤란한데.....

그런 감상을 품으면서도 당신은 조금씩 앞으로 펼쳐질 학  
원 생활에 자그마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 [ Scene HDay2\_2 ]

[ Effect : Fade In ]

[ BCG : 학교 ]

베라 선생님 : “이곳, 이펠람 학원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완벽한 능력주의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곳입니다.”

베라 선생님 : “평민과 귀족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베라 선생님 :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정말로 혁신적인 슬로건이죠.”

베라 선생님 : “귀족은 예로부터 평민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그들을 구원하고, 돌보며 그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베라 선생님 :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급급한 귀족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베라 선생님 : “황제님은 이러한 귀족들의 태도에 분노했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베라 선생님 :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 하는 귀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평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자.”

베라 선생님 : “그렇게 설립된 학원이 바로 이곳, 이펠람 학원입니다.”

선생님 :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평등한 존재입니다.”

베라 선생님 :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면 그 귀천을 따지지 않고 교육해 성장시킨다.”

베라 선생님 : “국왕님이 내세운 혁명적인 슬로건 안에서 세워진 학원 ‘이펠람’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겁니다.”

베라 선생님 : “부디 여러분의 최선을 보여주세요. 이곳에서는 당신이 증명하는 능력이 곧 여러분의 신분이 될 테니까요.”

베라 선생님 :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업이 시작될 거 같네요.

◇ [ Scene HDay2\_3 ] ( 찌꾸르 파트 )

[ Effect : Fade In ]

로미 : “황녀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로미 : “네? 오늘 선생님이 평민과 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구요?”

로미 : “흐음, 그렇네요. 저도 황녀님을 모시는 입장으로 서 별다른 말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로미 : “신분이라는 건, 관점에 따라서는 분명 불평등한 제도일지도 몰라요.”

로미 : “하지만 지금의 제가 황녀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냐고 묻는다면 도저히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로미 : “분명 신분 제도가 없어진 세계라는 건 저희 같은 평민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로미 : “하지만 저 같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황녀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분명 오만이겠죠.”

로미 : “언젠가 그런 세계가 온다고 해도, 아직은 이른 거 아닐까요?”

로미 : “하아, 황녀님 최근에는 이것저것 많이 질문하시네요. 이런 진지한 이야기 저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

로미 : “뭐, 그런 건 여기까지 하죠. 오늘 남은 일정도 힘내세요.”

◇ [ Scene HDay2\_31 ] ( 찌꾸르 파트 Main 스토리1 )

당신은 지나가던 도중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족 남학생 : “이 자식이, 지금 장난하는 거야? 너 같은 평민이 나랑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평민 여학생 : “그런 게 아니예요! 실수로 부딪혔을 뿐인 걸요!”

귀족과 평민 간의 다툼인 걸까요. 이 학교는 평민과 귀족이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귀족 남학생 : “주제넘은 평민 자식들, 최소한의 지켜야할 선이 있다는 걸 모르고.”

평민 여학생 :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먼 거리에서 그들의 말다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선택지 ]

1. 무시한다.
2. 평민을 돕는다.
3. 귀족을 돕는다.

# if Select 선택지 1

당신은 그들의 대화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녀로서 사사로운 분쟁에 끼어드는 건 좋지 않겠죠.  
다른 할 일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 # if Select 선택지 2

당신은 평민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귀족이라고는 하지만, 저렇게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귀족 남학생 : “이 자식..... 어, 어라? 황녀님?”

귀족 남학생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남학생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귀족이기에, 조금 더 귀족다운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이죠.

귀족 남학생 : “하지만 황녀님! 이 자식은 무례하게 사과도 하지 않고!”

당신은 그런 남학생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곳이 바라보았습니다.

귀족 남학생 : “크옥, 너 황녀님을 봐서 넘어가는 거라고. 너 운 좋은 줄 알아!”

귀족 남학생은 분한 듯 고개를 핵 돌려버리고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평민 여학생 : “가... 감사합니다. 황녀님.”

당신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민 여학생은 당신의 소매를 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당신은 가웃거리며 평민 여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민 여학생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입을 오물거렸지만 결국 그 학생의 닫힌 입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민 여학생 : “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입가에 번지는 씩씩한 웃음.

당신은 그 웃음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지만 결국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학생은 그대로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빠르게 자리를 떠나버렸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 # if Select 선택지 3

당신은 귀족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당연한 일이죠. 저 학생은 몸을 부딪히고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귀족인 학생의 대응은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 역시 귀족 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은 평민 여학생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을 부딪히고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죠? 조금 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예의를 지키는 게 어떤가요?

평민 여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학생은 약간 억울해보이는 표정으로 가볍게 입술을 깨물고 분한 듯이 ‘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귀족 남학생 : “그래, 진짜 그렇게 고개를 숙였어야지! 그게 귀족과 평민의 차이라는 거다!”

이런 과격한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한 건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민 여학생 : “황녀님은 조금 더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이에요.”

어라? 방금 저 아이 뭐라고 말한 걸까요?

그걸 질문할 틈도 없이 평민 여학생은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평민과 귀족이 같은 학원에서 생활한다니, 이건 정말로 가능한 일인 걸까요?

◇ [ Scene HDay3\_1 ]

[ Effect : Fade In ]

[ BCG : 침실 ]

[ SCG : 매이드1 ]

로미 : “좋은 아침이에요. 황녀님.”

로미 : “오늘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로미 :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후후.”

로미 : “그나저나 어제 있었던 일이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화제가 된 모양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 당신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평민 아이와 귀족 아이가 다тол 때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될 일인가?

**# if Select HDay2\_3 선택지1 무시한다 선택지**

로미 : “그 다툼으로 인해서 평민과 귀족 사이에 자그마한 파벌이 형성된 모양이에요. 하아, 정말이지.”

로미 : “이 학원이 설립되고 이렇게까지 평민과 귀족이 심하게 갈라선 적이 없었는데. 걱정이네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당신은 자그마한 불안감을 안고 로미의 이어질 말을 기다렸습니다.

로미 : “최근 평민 학생들을 중심으로 귀족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모양이에요.”

로미 : “아직 극히 소수의 인원이고, 학원 측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모양이지만.....”



로미 : “이런 식으로 평민과 귀족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점점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로미 : “움직임이 과격해지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네요.”

로미 : “황녀님도 항상 조심하세요. 지금 같이 날카로운 분위기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당신은 로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주의하는 편이 좋겠죠. 황녀라는 입장이 있으니 선불리 움직이는 건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로미 : “더 시간을 지체하는 건 좋지 않겠네요. 더 끌었다간 지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로미 : “그럼 준비하도록 할까요?”

#### # if Select HDay2\_3 선택지2 평민을 돕는다 선택지

로미 : “뭘 그렇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건가요. 화제가 된 건 다 황녀님 때문인데.”

나? 저요? 어째서? 당신은 크게 당황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로미 : “지금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황녀님이 평민 여자 아이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나는 단지 평민 여자 아이를 도왔을 뿐인데?

로미 : “황녀님이 평민 여자 아이를 도왔다는 사실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민 해방 운동을 지지하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민 해방 운동? 이 세계에서는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건가?

로미 : “물론 평민에게 선행을 베푸는 건 옳은 행동이라

고 생각해요. 황녀님은 상냥하시니까 그런 일을 두고만 볼 수 없으셨던 거겠죠.”

로미 :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최근 평민들 사이에서 신분제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거든요.”

로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미 : “아직 몇몇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척이나 무례한 발상이거든요.”

로미 :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학원 입장상 그런 학생들을 벌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로미 : “그런 와중에 황녀님이 평민 운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도우셨으니, 당연히 화제가 되겠죠.”

그 아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아이였구나.

아아, 이거 조금 귀찮은 일이 되버린 걸까.

당신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로미 : “황녀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신 것 같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로미 : “황녀님이 가지는 사소한 움직임 하나 하나가 나라를 대표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로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주의하는 편이 좋겠죠. 황녀라는 입장이 있으니 선불리 움직이는 건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로미 : “더 시간을 지체하는 건 좋지 않겠네요. 더 끝었다간 지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로미 : “그럼 준비하도록 할까요?”

## # if Select HDay2\_3 선택지2 귀족을 돕는다 선택지

로미 : “뭘 그렇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건가요. 화제가 된 건 다 황녀님 때문인데.”

나? 저요? 어째서? 당신은 크게 당황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로미 : “지금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황녀님이 귀족 남자 아이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나는 단지 귀족 남자 아이를 도왔을 뿐인데?

로미 : “황녀님이 귀족 남자 아이를 도왔다는 사실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민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평민을 억압? 어째서 그게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지?

로미 : “물론 황녀님의 지적은 타당했다고 생각해요. 황녀님은 정의로우시니까 그런 일을 두고만 볼 수 없으셨던 거겠죠.”

로미 :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최근 평민들 사이에서 신분제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거든요.”

로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미 : “아직 몇몇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척이나 무례한 발상이니까요.”

로미 :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학원 입장상 그런 학생들을 벌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로미 : “그런 와중에 황녀님이 평민 운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니, 당연히 화제가 되겠죠.”

그 아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아이였구나.

아아, 이거 조금 귀찮은 일이 되버린 걸까.

당신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로미 : “황녀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신 것 같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로미 : “황녀님이 가지는 사소한 움직임 하나 하나가 나라를 대표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로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주의하는 편이 좋겠죠. 황녀라는 입장이 있으니 선불리 움직이는 건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로미 : “더 시간을 지체하는 건 좋지 않겠네요. 더 끝났다면 지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로미 : “그럼 준비하도록 할까요?”

◇ [ Scene HDay3\_2 ]

[ Effect : Fade In ]

[ BCG : 학교 ]

수업을 듣기 위해 당신은 자리에 앉았지만, 선생님의 수업 내용은 거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원래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평민이었다면 마음 놓고 신분제를 폐지하려는 운동에 참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당신이 평민이라고 해도 쉽사리 그런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려고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어려운 일이네요. 단지 황녀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신나게 즐기고 싶었을 뿐인데.

황녀라면 마구 행동해도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가볍게 우울한 마음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베라 선생님 : “황녀님, 수업 제대로 듣고 있으신 건가요?”

선생님의 부름에 당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 건 그리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고개를 흔들며 불필요한 잡념을 털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황녀니까요. 기껏 황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배드엔딩으로 끝날 수는 없죠.

당신의 해피엔딩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 있을 테  
니까요.

◇ [ Scene HDay3\_3 ] ( 찌꾸르 파트 )

Awake 단계에서

[ Effect : Fade In ]

로미 :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황녀님.”

로미 : “수업은 어떠셨나요? 네? 딴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께 혼나셨다구요?”

로미 : “후후, 요즘 황녀님은 어딘가 조금 이상하시네요.”

당신은 깜짝 놀라 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로미 : “아니예요. 황녀님은 항상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시던 분이셨으니,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로미 : “어딘가 소설책에서 나올 법한 주인공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황녀님은.”

원래 황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당신은 로미의 표정에서 가벼운 안타까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감정인지, 당신은 알 수 없었지만 그걸 그녀에게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어봤다간, 자신이 그 황녀가 아니라는 걸 들켜버릴 것 같았거든요.

로미 : “역시 항상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겠쬬. 그런 부분은 제가 메울 테니까요. 황녀님은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해주세요!”

당신은 로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황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그런 가벼운 의문을 품고서.

◇ [ Scene HDay3\_31 ] ( 찌꾸르 파트 )

# 평민과 대화 ( 평민을 돕다를 선택했을 때만 등장 )

당신은 지나가던 도중 어제 있었던 사건의 당사자인 평민 여학생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선택지 ]

1. 무시한다.
2. 대화를 한다.

# if Select 선택지1 무시한다 선택지

역시 황녀되는 입장으로서 저런 사건에 깊이 연관되는 건 좋지 않겠쥬.

당신은 슬쩍 고개를 돌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 if Select 선택지2 대화를 한다 선택지

평민 여학생 : “아! 황녀님! 와주셨군요!”

평민 여학생은 당신을 무척이나 반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도움을 주었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겠쥬.

평민 여학생 : “실은 저, 황녀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민 여학생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평민 여학생 : “황녀님, 신분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분제. 역시 이 아이는 평민 해방 운동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평민 여학생 : “저는 이 세상에 신분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민 여학생은 담담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전혀 두려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황녀에게 신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인 것처럼, 신분 제도는 애초부터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은 무척이나 초연했습니다.

평민 여학생 : “황녀님은 사람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평민 여학생 : “황녀님은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황녀님, 저희와 함께 평민 해방 운동 전선에 참여해주시지 않으실래요?”

평민 해방 운동 전선. 당신은 그 이름을 듣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학교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흐름에 당신은.....

## [ 선택지 ]

1. 평민 해방 운동을 돕는다.
2. 해방 운동을 도울 수는 없다.

### # if Select 선택지1 평민 해방 운동을 돕는다 선택지

( 1번 - 평민 해방 운동을 돕는다. )

평민 여학생 : “정말인가요? 황녀님, 정말로 저희를 도와 주시는 건가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평민과 귀족이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단지 태어난 가정에 따라서 신분이 나뉘고, 계급이 나뉘다니. 그런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황녀라는 입장을 가진 당신이기에 더더욱, 이 거대한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 당신은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평민 여학생을 돕게 된 것도 하나의 운명이겠죠.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평민 여학생 : “정말 감사합니다 황녀님! 황녀님의 숭고한 이름은 그대로 역사책에 기록될 거예요.”

평민 여학생 :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황녀 엔젤라.”

평민 여학생 : “그 이름은 눈부신 별이 되어 이 하늘에 새겨지겠죠.”

평민 여학생 : “황녀님과 함께 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 # 평민 해방 루트 Trigger - True

## # if Select 선택지2 평민 해방 운동을 도울 수는 없다 선택지

평민 여학생 : “그런가요. 역시 황녀라는 입장으로서는 제 대로 저희를 도와주실 수는 없겠죠.”

평민 여학생은 슬픈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적이면서, 모욕적인 시선을.

하지만 당신은 한 나라의 황녀.

당신이 평민 운동을 지지한다는 건 분명 어떤 의미에서 는 황제인 당신의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은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 았습니다.

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걸까.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까.

당신은 가볍게 생각을 마치고 평민 여학생에게 말했습니 다.

분명 그 운동은 나라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그런 거대한 희생을 낼 수 있는 운동을 자신은 찬성할 수 없다.

그런 뜻을 담은 말을 그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평민 여학생 : “아쉽네요. 황녀님과 함께라면 분명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민 여학생 : “그렇다고 해도 저는 굽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아파하고 있는 평민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평민 여학생 : “아마 황녀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려나요.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평민 여학생은 당신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심코 당신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을까. 여러 가지 의미로.

◇ [ Scene HDay3\_32 ] ( 찌꾸르 파트 )

**# 평민과 대화 ( 평민을 돕다를 선택했을 때만 등장 )**

당신은 지나가던 도중 어제 있었던 사건의 당사자인 귀족 남학생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선택지 ]**

1. 무시한다.
2. 대화를 한다.

**# if Select 선택지1 무시한다 선택지**

역시 황녀되는 입장으로서는 저런 사건에 깊이 연관되는 건 좋지 않겠죠.

당신은 슬쩍 고개를 돌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 if Select 선택지2 대화를 한다 선택지**

귀족 남학생 : “아! 황녀님!”

귀족 남학생은 당신을 무척이나 반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도움을 주었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겠죠.

귀족 남학생 : “실은 황녀님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귀족 남학생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던 걸가요?

귀족 남학생 : “실은 평민 해방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평민 해방 운동, 역시 그 이야기인가요.

당신은 약간 언짢은 기분으로 귀족 남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족 남학생 : “그... 어제는 굉장한 추태를 보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귀족 남학생 : “귀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했으니까요.”

귀족 남학생은 우울한 표정으로 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족 남학생 : “실은 그 아이, 유독 귀족에게 무례한 행위를 하는 걸로 소문이 퍼져서요.”

귀족 남학생 : “몸을 부딪히고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즐겨보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족 남학생 : “황녀님. 평민 해방 운동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귀족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귀족 남학생 : “능력들이 있는 평민들을 기용하고, 그것을 나라를 위해 쓴다. 황제님의 그런 사상은 분명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족 남학생 : “하지만 그로 인해 평민 학생들이 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질서를 흔들고, 혼돈을 초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족 남학생 : “실제로 평민 학생들 사이에서 귀족들에게 반기를 들고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보고 되고 있고요.”

귀족 남학생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족 남학생 :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귀족 남학생 : “지금의 평민 해방 운동은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귀족의 머리를 꺾고 권력을 지배하려는 몇몇 사상가들의 선동입니다.”

귀족 남학생 : “악마 같은 속삭임이죠. 말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본심은 권력을 잡고 싶은 평민들의 선동이니까요.”

귀족 남학생 : “평민 해방 운동이 평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된다면 분명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귀족 남학생 : “실제로 평민 해방 운동이 옳은 일이라고 해도 지금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귀족 남학생 : “실제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귀족 남학생 : “그렇기에 귀족의 권위를 더더욱 단단히 하고, 평민들에게 귀족의 위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족 남학생 : “황녀님, 저희에겐 황녀님이 필요합니다.”

## [ 선택지 ]

1. 귀족 남학생을 돕는다.
2. 귀족 남학생을 돕지 않는다.

# if Select 선택지1 귀족 남학생을 돕는다. 선택지

당신은 귀족 남학생의 말에 크게 동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위험해. 이대로 평민들과 귀족 사이의 간

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금 이 나라의 혼란은 가속될 거야.

귀족을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귀족들이 평민에게 가한 압박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귀족과 평민이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게 하면 분명 지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황녀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어.

당신은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서 귀족 남학생을 향해 가 법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족 남학생 : “정말인가요? 정말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귀족 남학생 : “영광입니다, 황녀님. 황녀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족 전선 루트 Trigger - True

# if Select 선택지2 귀족 남학생을 돕지 않는다. 선택지

귀족 남학생 : “그렇죠. 쉽사리 누군가의 의견에 손을 드는 건 황녀의 입장으로서 옳지 않겠죠.”

귀족 남학생은 슬픈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평민 해방 운동이 이 나라에 어떤 혼란을 초래할지.

하지만 당신은 한 나라의 황녀.

당신이 누군가의 편을 든다는 건 한 쪽의 균형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걸까.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당신은 가볍게 생각을 마치고 귀족 남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담한다는 게 알려지면 평민들은 더욱 더 반항할 것이다.

황녀의 입장에서 평민을 억압하려는 게 알려진다면 오히려 당신이 하려는 계획을 망칠 가능성이 있다.

귀족 남학생 : “그렇군요. 황녀님의 의견도 무척이나 타당합니다.”

귀족 남학생은 당신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귀족 남학생 :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녀님. 저희들끼리 어떻게든 해보이겠습니다.”

무심코 당신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을까. 여러 가지 의미로.

◇ [ Scene HDay4\_1 ]

[ Effect : Fade In ]

[ BCG : 침실 ]

[ SCG : 매이드1 ]

로미 : “안녕히 주무셨나요? 황녀님. 어쩐지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로미 :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피곤하시죠?.”

로미 : “네? 저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황녀님의 충실한 매이드.”

로미 : “당신의 의견이 곧 저의 의견이며, 당신이 가는 곳이 곧 제가 가야할 길입니다.”

로미 : “그러니 황녀님. 당신을 믿으세요. 당신이 가려고 하는 길을 믿으세요.”

로미 : “당신이 길을 가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길을 후회하지 마세요.”

로미 : “당신은 당신의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니까요.”

로미 : “괜찮아요. 분명 괜찮을 거예요.”

로미 : “당신은 저의 멋진 주인님이시니까요.”

◇ [ Scene HDay4\_2 ]

[ Effect : Fade In ]

[ BCG : 학교 ]

선생님 : “선택을 한다는 건,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 : “당신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생길 것이고, 선택을 함으로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 “자신의 선택으로 누군가가 상처입고, 누군가가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선생님 : “그런 상상은 언제나 선택하는 걸 두렵게 만듭니다.”

선생님 : “하지만, 선택하는 걸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선생님 : “선택이란, 책임을 지고 자신이 정한 길을 나아가는 것.”

선생님 : “당신이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건 분명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죠.”

선생님 : “하지만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망설이는 동안 누군가는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 “또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에 떠날 수 없는 주변 사람도 말려들고 말죠.”

선생님 : “선택의 끝이 보물상자로 가득 찬 여정이 될지, 함정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선생님 : “부디, 후회없는 선택을 하기를.”

◇ [ Scene HDay4\_3 ]

# 귀족 전선 루트 Trigger - True

어딘가 무척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당신의 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귀족 남학생 : “안녕하십니까, 황녀님.”

귀족 남학생 : “황녀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족 남학생 : “황녀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귀족 남학생 : “평민 학생들이 황녀님이 저희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귀족 남학생 : “그리고 그 사실이 평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 같고요.”

당신은 귀족 남학생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귀족 남학생 : “평민 학생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반란? 내가 귀족 측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거대한 함성 소리가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손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남학생 : “황녀님 이쪽입니다. 어서 피하셔야합니다.”

귀족 남학생에게 이끌려 앞을 향하면서도 당신은 충격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어째서? 어째서?

나는 나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당신을 스쳐지나갔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당신이 한 건 단지 선택이니까.  
수많은 갈래길을 걸었다고 해도 그건 포장된 길이니까.  
귀족 남학생 : “황녀님! 정신 차리세요! 황녀님!”  
점점, 당신의 의식이 멀어져 갑니다.  
그대로 화면이 검은 물결에 잠겨.....

**# if P1 reputation\_point > P2 reputation\_point**

**# 반란 제압 루트**

귀족 남학생 :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황녀님.”  
당신의 눈앞에 귀족 남학생이 보였습니다.  
죽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신은 귀족 남학생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귀족 남학생 : “반란은 제압했습니다. 다만.”  
귀족 남학생 : “평민 측에서 반란을 주도했던 학생 한 명이 대표로 처형된다는 모양입니다.”  
귀족 남학생 : “‘루시아’라는 이름이라고 했던가요.”  
루시아라는 이름에 대해 당신은 어쩐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성적을 이야기할 때였던가요.  
그 아이가 반란을 주도하다니. 평민 중 유망한 인재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귀족 남학생 : “하아, 황녀님을 부른 게 선부른 판단이었

습니다.”

귀족 남학생 : “하지만 일은 벌어져버렸고, 더는 되돌릴 수 없겠죠.”

귀족 남학생 : “황녀님, ‘루시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시아가? 나를?

귀족 남학생 :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남겨주시죠.”

당신은 그대로 루시아라는 아이를 만나러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 [ P1 P2 채팅 파트 이후 엔딩 ]**

**# if P1 reputation\_point < P2 reputation\_point**

**# 반란 제압 실패 루트**

로미 : “황녀님, 정신을 차리셨군요.”

로미 : “죄송합니다. 저는 결국 황녀님을.....”

메이드 로미는 슬픈 얼굴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곧 죽는구나.

반란에 성공한 평민들의 분노로 인해.

당신은 로미를 상냥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로미 잘못이 아니야. 나는 잘못 선택한 것뿐이니까.

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을 비집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민 병사 : “어이 황녀님, 면회다.”

면회라니 누가 저를 보러 오는 걸까요?

평민 : “루시아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루시아, 루시아라는 이름에 대해 당신은 어쩐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성적을 이야기할 때였던가요.

그 아이가 반란을 주도하다니. 평민 중 유망한 인재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당신은 마음을 굳히고 열리는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 [ P1 P2 채팅 파트 이후 엔딩 ]**

## # 평민 해방 루트 Trigger - True

어딘가 무척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당신의 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평민 여학생 : “안녕하십니까, 황녀님.”

평민 여학생 : “황녀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민 여학생 : “황녀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민 여학생 : “귀족 학생들이 황녀님이 저희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평민 여학생 : “그리고 그 사실이 귀족 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 같고요.”

당신은 평민 여학생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민 여학생 : “귀족 학생들이 반란 제압이라는 명목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평민에게 죄를 묻고, 평민을 이 학원에서 추방시킬 생각이에요.”

반란 제압? 이 운동을 반란으로 이름으로 그냥 덮어버릴 생각이라는 건가요?

거대한 함성 소리가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손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민 여학생 : “황녀님 이쪽입니다. 어서 피하셔야합니다.”

평민 여학생에게 이끌려 앞을 향하면서도 당신은 충격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어째서? 어째서?

나는 나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당신을 스쳐지나갔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당신이 한 건 단지 선택이니까.

수많은 갈래길을 걸었다고 해도 그건 포장된 길이니까.

평민 여학생 : “황녀님! 정신 차리세요! 황녀님!”

점점, 당신의 의식이 멀어져 갑니다.

그대로 화면이 검은 물결에 잠겨.....

**# if P1 reputation\_point > P2 reputation\_point**

**# 폭동 실패 루트**

평민 여학생 :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황녀님.”

당신의 눈앞에 평민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죽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신은 평민 여학생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민 여학생 : “소동은 다행스럽게도 진정되었습니다.”

평민 여학생 : “하지만 평민 학생들을 몰아내기 위해 억울하게 반란이라는 누명을 씌웠다는 죄를 물어서 귀족을 이끌었던 대표자에게 큰 죄를 묻는다고 하네요.”

평민 여학생 : “‘루시아’라는 이름이라고 했던가요.”

루시아, 루시아라는 이름에 대해 당신은 어쩐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성적을 이야기할 때였던가요.

그 아이가 폭동을 주도한 건가.

평민 출신이 평민을 몰아내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뭔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평민 여학생 : “하아, 황녀님을 부른 게 설부른 판단이었던 걸까요.”

평민 여학생 : “하지만 일은 벌어져버렸고, 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평민 여학생 : “황녀님, ‘루시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시아가? 나를?

평민 여학생 :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남겨주시죠.”

당신은 그대로 루시아라는 아이를 만나러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 [ P1 P2 채팅 파트 이후 엔딩 ]

# if P1 reputation\_point > P2 reputation\_point

# 폭동 성공 루트

로미 : “황녀님, 정신을 차리셨군요.”

로미 : “죄송합니다. 저는 결국 황녀님을.....”

메이드 로미는 슬픈 얼굴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곧 죽는구나.

폭동으로 들고 일어선 귀족들에 의해.

반란이라는 큰 죄목을 끌어안고서.

당신은 로미를 상냥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로미 잘못이 아니야. 나는 잘못 선택한 것뿐이니까.

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을 비집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족 : “황녀님, 면회입니다.”

면회라니 누가 저를 보러 오는 걸까요?

귀족 : “루시아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루시아, 루시아라는 이름에 대해 당신은 어쩐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성적을 이야기할 때였던가요.

평민이었던 그 아이가 귀족의 편에 서서 폭동을 일으키다니.

당신은 마음을 굳히고 열리는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 [ P1 P2 채팅 파트 이후 엔딩 ]**